

말씀 끝까지 (사사기 2:1-5)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는 응답이 필요하다. 지금 사는 것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응답 받고 증명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한다. 오늘은 말씀 끝까지이다. 본문은 사실 1장부터 읽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한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 뿐이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필요하다. 이것이 아직 언약에 답이 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보기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개 뿐이다. 언약. 그것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 안에 저주에서 해방되는 구원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천국 간다. 지옥 안가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 뿐 아니라 언약 있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언약 안에만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언약을 해야 하는데, 다른 것 하기 때문에 응답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 정복할 수 있다. 사단 정복할 수 있으니까. 언약은 능히 사단을 정복한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항상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조건은 단 한 개다.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다. 저주에서 해방되어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되돌아 서서 저주를 밟아 버리는 것이다. 저주를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게 언약이고 언약의 사람의 권세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환경과 과거와 미래를 정복해 버리는 것이다. 미리 응답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미래를 정복해 버리는 것이다. 이 놀라운 것들이 오직 언약 안에 있다. 숨겨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잘 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과 통하는 지혜 있으면 끝이다. 이 지혜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딱 바로 아는 것을 지식이라 한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이게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고 했다. 이것 깨야 한다. 그 방법은 딱 한 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자꾸 나오고 눈을 뜨게 된다. 그게 지혜이다. 자꾸만 진짜 안다. 정말로 안다. 그게 힘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눈이 열리는 것이다. 오직 이 누림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자꾸 답이 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네, 진짜 되네 자꾸 답이 나게 된다. 그러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전도자가 되면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더 깊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막 하려는 육신적인 전도라서 안되지 영적 눈을 뜨고 정말로 전도하면 성경적 전도 일어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비밀을, 언약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이 일을 하나님이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4, 25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미리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답 난 것이다. 그리스도면 된다는 답, 그 위에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답 났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래를 이미 정복한 것이다. 지난 주에는 이런 비밀을 가진, 한 지역의 교회를 책임진 한 사람을 봤다. 70인 중직자였는데, 그 이름이 야손이었다. 믿음의 역사를 알고 사랑의 수고와 큰 사람이었다. 분명히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와 아끼지 않았다. 나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귀중하기 때문에 섬겼다. 자기가 죽고 자기가 손해를 본다. 사랑의 수고, 분명히 역사 일어날 것 알기 때문에 소망의 인쇄,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하니까 참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냥 소망의 인쇄가 아니고, 그냥 사랑의 수고와 아니다. 그냥 믿음의 역사가 아니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사람이었다. 될 수 있겠는가? 되기를 소원하는가? 출발은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개인 시간이다. 옛날에는 이것을 정시기도시간이라고 하였다. 다니엘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오랫동안 설명했다. 그 중간에 오면서 이것이 서밋 시간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 때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진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내가 땅 끝까지 증인 될 수 있는가? 질문하는 것이다. 이게 목상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 답이 더 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이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한다. 죽는 날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이걸 안하고 한꺼번에 전부를 다 먹으려고 대드는 것이 인간이다. 영적 문제이다. 창세기 3장에서 온 영적 문제이다. 좀더 상세히 이야기 하면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매일 24시간 해서 너와 통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옛날엔 그랬다. 기도하는게 힘들어서 아침저녁 기도 힘들었다. 한번 하면 일년 효과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1월 1일 한번 기도하고 일년 내내 노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굉장히 손해 보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인데, 인간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전부터 약하게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는 것이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다. 24시간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게 그리스도이다. 그냥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정복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권세이다. 이 야손, 평신도 중직자 한 사람이 교회를 책임졌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분이 되는 교회였다. 그 색깔이 뭐냐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쇄였다. 그 내용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었다. 이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이런 교회 책임자 한번 되어봐야 한다. 평신도였다.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출발이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다. 실행해보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뜻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한 것이다.

1. 말씀 끝까지

본문 말씀은 사실 1장부터 읽어야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싹 다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못 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악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용서할 길이 없는 것이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는 모든 성읍에서는 호응있는 사람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였다. 17절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였다. 명령대로 하라고 하였다. 진멸하라, 호응 있는 자는 싹 다 죽여라. 여호수아 6장 21절에도 여리고 전쟁때, 성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되 남녀 노소 소양 나귀를 다 칼로 멸하였다.고 하였다. 여리고 전쟁에서는 짐승도 다 죽였다. 가나안 전쟁의 표본전쟁이었다. 싹 다 죽이고 새 나라 건설하라는 것이다. 여기도 남녀 노소를 다 칼날로 죽였다고 하였다. 포인트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못했다. 오늘 사사기 1장 19절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21절에는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하였다. 여부스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은 전쟁해야 어찌피 질 것 같으니까 속였다. 자기들은 멀리서 왔다고 속였다. 신발, 옷, 다 떨어진 것 입고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와서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죽이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속은 것이었다. 속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 속인것까지 죄를 얹어서. 그런데 맹세한 것 때문에 안 죽였다. 맹세한 것 지켜야 이렇게 된 것이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고, 큰 말씀이 있는데, 큰 말씀은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면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그 때 바른 선택은 그 자리에서 왜 속였냐고 하면서 다 죽여야 한다. 그런데 살려줬다. 인간 중심의 해석이다. 우리는 실수하기 쉽다. 맹세하면 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건 맞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말씀이 있는데, 자기 중심의 해석을 해서 자기가 한것이라서 그런 것이다. 내가 보기에야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속였다고 하면서 죽여야 한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을 놓아 보냈다고 하였다. 이게 요셉 가문이 정탐하러 갔는데, 문을 못 찾아서 그거 찾아준 사람을 살려준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성읍을 건축하고 루스라고 하고 거기서 살았다.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야기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였다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어야 하는가? 문을 말해달라고 하고, 말 해도 죽고, 안해도 죽는다. 문이 어디있는지 말해주고 죽여라. 그 사람은 환장할 것이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현지인들하고 성경공부하는데 어린아이를 죽였다고 날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니가 하나님 해라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어때서? 그 아이가 크면 약해지는 것이다. 안될거면 어릴때부터 죽는게 낫다. 여하간 필요없고 싹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죽고 후대가 죽게 되었다.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 죽이는데 쉬운게 아니다. 그래도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것이다. 죽여야 한다. 어리다고 귀엽다고 놔두면 커서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것이다. 하나님은 안다. 인간은 모르지. 귀엽게 보인다. 어린애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린애를 높이는 것이다. 모든게 다 그렇다. 종교다. 사람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은 딱 하나이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예수 안 믿으면 짐승보다 못하다. 27절에 보면 그에 딸린 마을 주인을 없애지 못하니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같이 사는 것이다. 그런데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을 노역 시키고 쫓아내지 않았다. 힘든 일을 노예처럼 시킨 것이다.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하니까 놔둔 것이다. 29절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고 하였다. 30절에 그들이 노역을 했다고 하였고 31절에도 르홉 주인을 쫓아내지 못했다. 34절에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구속에 처박게 한 것이다. 골짜기에 물이 많은

데, 지금도 거기 가면 나무가 있고 꼭대기에는 나무가 없는데 골짜기에 못 내려 오게 한 것이다. 35절에는 요셉가문이 아모리 족속을 노역시켰다는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살려준 사람이 너무 많았다. 왜 이게 끝까지 다 죽이라는게 무슨 메시지인가? 사단을 끝까지 따라가서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여하간, 끝까지 가서 사단을 다 밟아버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완전한 답을 주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너무 많이 살려준 것이다. 그들이 힘든 노역을 하니깐 그것으로 만족하였을수도 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그 당대의 사정이다. 그 다음대에 가서는 완전히 이야기가 뒤집어 버리게 된 것이다. 어른들은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괜찮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명 길로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신다. 심지어는 말씀을 먼저 하고 그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누가 어느 신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누가 믿는 신이 있으면 먼저 말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평생 영원히 해보라고 해 보라. 어느 신이 그렇게 하겠냐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말씀 전해서 생명 살릴 백성이 말씀을 예사로 들은 것이다. 그 말씀을 예사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이래서는 응답 안 될 것이다. 말씀 성취를 봐야 하는데, 말씀을 예사로 받았다. 안된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영안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영적 문제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사는것의 심각성에 눈이 안 열린 것이다. 귀신을 모르면 복음을 잘 모른다. 체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나는 분명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도 괜찮은 집사였다. 그런데 내가 내 주위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 약국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중에 귀신들려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을 판단을 못했다. 복음은 일단 사단에게 준 메시지이다. 사단에게 한 그 말이 우리에게 답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다.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것을 말한다. 이 뱀의 머리를 깨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겠다. 약속이고 예언이다. 이 영안이 없으니까 우상의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는 것이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별로 없다. 영안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후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것인지 큰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내 힘든일을 대신 해주니 오히려 잘됐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속은 것이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어린아이도 다 죽이라고 했겠는가? 잘 생각 해보야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려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과 후대들에게 울무가 된 것이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다. 그들이 요구리의 가시가 될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울무가 될것이라고 하였다. 2절에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왜 안했냐는 것이다.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은 무슨 약속이든 약속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맹세에 맞춰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맹세고 뭐고 간에 약속하지 말라고 했다. 다 죽이라는 것이다. 물론 멀리서 온 줄 알고 그런것이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절이다. 니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않을것이니깐 너도 그 사람들하고 아무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영원히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떤 약속이든 하지 말아라. 그 제단을 다 부수라. 그리고 싹 다 죽여라. 너에게 역사하는 사단을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라. 그리스도 언약 누리면, 고백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노역한다고 해서 그거 좋아하고, 육신적인것 때문에 영적인거 잊어버리면 결국 너의 후대가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말씀을 받았는가? 이 때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서 다 죽여라. 그리고 새 나라를 만들라는 말씀을 받았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일단 성경 전체를 다 받았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전부다 심각하게 다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다. 생명으로 다 받는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결론부터 받아야 한다. 그래야 방향이 딱 나온다. 그것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이다. 심각하게 받아야 한다. 생명으로 받아서 내 생명과 바꿀정도가 되면 기적의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예사로 받으면 안된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그렇게 하면 집집마다 아이들이 죽을거라고 하였다. 지금은 괜찮게 보일수 있다. 그러나 다음대에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우리에게도. 대표적인 것이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한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확실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심각하게 받는 것이다. 그래 되어서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그 결론을 한 마디로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옆에 살려둔 우상들이 울무가 되어 사실 죽었다. 우리도 말씀을 예사로 받으면 우리나라 우리

후대도 이렇게 된다. 심각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얼굴을 찡그린다고 해서 심각하거 아니다. 알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한다. 십자가의 보혈,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데, 이 안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고 권세가 뭔지 알아야 한다. 알면 자동으로 언약으로 잡게 되어 있다. 왜냐면 거기에 내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이다. 응답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들어야 한다. 성경 읽어야 한다. 공부도 해야 한다. 그리고 묵상해야 한다. 기록도 해보아야 한다. 내 마음에 기록되도록. 그것이 힘이 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인간에게 언약만 있으면 끝이니깐. 이래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우리 안에 심각하게 들어와야 한다. 이 시대를 두고 우리가 받은 말씀이다.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미스바 운동, 100팀 100지교회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로 가는 구체적인 길이니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절대적이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안 바뀐다. 모든 것이 다 바뀌지만 말씀만 안 바뀐다. 그리고 아무도 이 말씀을 건들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 쉽지는 않은 일이다. 억지로 지키려면 안된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정복하게 하신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아신다. 조금 품 잡아도 역사 일어난다. 지속하면 미래 정복하는 것이다. 오늘 지금이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미래를 미리 정복하는 것이다.

2. 영력

말씀을 끝까지 지켜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육신의 노력으로는 안된다. 혹 하루나 이틀은 될런지 모른다. 하루 이틀 된다고 해도 꺾이기이다.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지켜져야 한다. 진짜 이게 귀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육신적인 힘으로는 절대 안된다. 하나님의 영의 힘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말씀이다. 불신자도 이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말씀에 의해 세밀하게 인도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잡을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따라갈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구약시대에도 이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것이 희생제사이다. 그러니까 이미 오셨다. 모습이 안 나타 나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힘을 줘서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거기에 대한 증인 되라고. 그래서 그의 언약, 십자가의 보혈을 누리면 힘이 난다. 지속하면 계속 깨달아진다. 더 깊이 누리게 되고 더 큰 힘을 누리게 된다. 이 언약의 피는 저주에서 해방이다.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렸다. 이 피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피를 누리는 자는 해결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정복한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역전이 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능자이다. 이 전능하신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딱 잡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다. 당연히 땅에 있는 모든 문제도 이 열쇠로 열 수 있다. 무엇이든 다 열수 있는 완전 열쇠. 이것이 그리스도이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는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단은 아무리 우리를 이기려고 해도 절대 못 이긴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았다. 누가 하나님의 결정을 깰 것인가?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사단에게 쳐도 사단은 우리를 못 이긴다. 졌다 해도 낙심할 필요 없다.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된다. 내가 졌다고 자꾸 시달리면 내 중심이다. 하나님의 뜻은, 졌으면 그게 내 결정과 무슨 관계있냐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를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다. 절대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누리는 것이다. 매일 고백하면 누리라는 것이 온다. 응답도 오고 증인도 된다. 그리스도이면 끝이라는 말을 할수 있는 증인이 된다. 이 사람이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영력을 주시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매일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게도 오늘 이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기적을 매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고백하려고 발버둥치면 여기에 도달한다. 어느날. 이 시대의 말씀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심각하게 들어오기 바란다. 부활 메시지 4개,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생명으로 받는다는 게 뭐가?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그리고 이건 내 인생보다 더 귀하다. 사실은 내 인생, 그 중요한 내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다. 이걸 깨닫는 것이다. 그 사람이 생명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다. 237, 치유, 서밋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